

# 목포시, 저소득층 암환자·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 지난해 8500여건 이어 올 상반기 암 137건·희귀질환 3494건 성인 암환자 모든 암종 연 최대 300만원까지 연속 3년간 지원

목포시가 저소득층 암환자·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목포시는 저소득층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치료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연중 수시로 암환자·희귀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신청받아 지원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암환자에게 223건(2억6700만원), 희귀질환자에게 8361건(5억67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상반기까지 암환자에게 137건(1억7400만원), 희귀질환자에

게 3494건(3억900만원)을 지원했다. 암환자의료비의 지원 대상은 성인과 소아 암환자로 나누어져 있다. 성인 암환자의 경우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모든 암종에 대해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연 최대 300만원을 연속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소아암 환자(신정일 기준 18세 미만)는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당연히 선정되며 건강보험 가입자는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기준 충족시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백혈병 3000만원, 기타 암 2000만원(조혈모세포이식 시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희귀난치질환을 진단받은 후 산정특례에 등록된 대상자에게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 시 영양급여 본인부담금과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질환은 1272개(희귀질환 1248개·중증난치질환 24개)로 올해는 옥수수 전분을 먹어야 하는 당원병 환자에게 전분 구입비 지원이 신설됐다. 기타 자세한 내용과 구비서류는 목포시보건소 의료비담당자(061-270-8921)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영광군은 지난 2일 영산면 맛나곱창집이 영광곳간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가게 '245호점'으로 참여해 현판을 전달했다. <영광군 제공>

## 완도 수산물, 북미 시장 진출 속도... 밴쿠버서 판촉 행사

### 식품업체와 300만달러 수출 협약 LA 한인 축제도 참가 수산물 홍보

완도군이 수산물 북미 판로 개척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캐나다 밴쿠버의 T&T 슈퍼마켓에서 전북 판촉 행사를 개최하고 한인 축제에 참여해 완도 특산품을 알렸다. T&T 슈퍼마켓은 캐나다 최대 아시아 식품 취급 체인 슈퍼마켓으로 완도군은 19개 매장에서 관내 기업인 더플문주식회사완도의 자숙 냉동 전복 제품 시식 및 홍보 행사를 열어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는 11월 30일까지이다. 캐나다 내 아시아 식품 수입 업체(Han Ka Export-Import Ltd.이하 한카)와 300만 달러 수출 협약도 했다. 2025년 밴쿠버에서 열릴 '코리아 데이 완도 특산물 판촉 행사' 추진을 위한 논의도 마쳤다.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열린 '제51회 LA 한인 축제'에서는 지역 기업인 (주)바다명가, 해성인터내셔널, 완도바다영어조합법인, 다시마전북수산영어조합법인 등과 함께 판촉 행사도 했다. 전복, 해조류, 광어 등을 홍보·판매해 작년에 이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열린 '제51회 LA 한인 축제'에서 지역 기업인들이 완도바다영어조합법인 등과 함께 판촉 행사를 진행했다. <완도군 제공>

어 완판(10만 달러)하며 미국 LA시장에서 완도군 수산물 입지를 다졌다. 축제 기간 LA 홈쇼핑 월드의 2개 매장에서 대한물산, 해성인터내셔널, 완도세계로237 등 5개사의 수산 제품의 온오프라인 판촉 행사도 열었다.

완도군 관계자는 "더 많은 수산물이 북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해외 판촉활동, 제품 개발 등 수산물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 '영광곳간 착한가게' 벌써 245호점

### 매월 3만원 이상 기부 나눔 실천

영광군민들의 아름다운 이웃사랑 온정이 모이는 '영광곳간 착한가게' 더불어 살기 공동체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 영광군은 최근 영산면 맛나곱창집(대표 서성경)이 영광곳간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가게 '245호점'으로 참여해 현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영광곳간 착한가게 가입 운동은 2018년 처음으로 시작해 7년째 이어지고 있다. 참여업체들은 매월 3만원 이상의 이웃사랑 기금을 차차곡 기부하고 있다. 지자체는 관련 법상 모금 운동을 할 수 없어서 영광군 지역사회 보강협의체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기부금 모금과 지원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영광군은 착한가게 가입 확산을 촉진하는 홍보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이처럼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 모금 운동을 수

년간 이어오고 있는 곳은 영광군이 전국에서 유일하다. 영광군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착한가게 장수 운영 비결로 "더불어 살려는 남다른 이웃사랑 정신과 따스한 마음이 원동력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착한가게 245호점으로 참여한 맛나곱창집은 2017년 개업 이후 한결같은 맛으로 영산 먼민뿐 아니라 외지 방문객에게도 또 찾고 싶은 맛집으로 입소문이 자자한 업소다. 서성경 대표는 "낙담하지 않지 않지 매일 적은 금액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은 마음에 영광곳간에 가입하게 됐다"며 참여 배경을 밝혔다. 영광곳간 관계자는 "따뜻한 관심과 온정을 베풀어 준 서 대표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가나간 폭염으로 인해 지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려운 이웃이 없는지 꼼꼼히 잘 살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w@kwangju.co.kr

## 완도군, 민관 합동 치매노인 실종 대응 훈련



완도군에서는 7일 목포시청 하키팀 및 전국체전 출전 목포시 선수단 지원을 위한 후원금 1300만원을 지정 기탁했다. 목포시청 하키팀 후원금 10,000,000원, 목포시 선수단 후원금 3,000,000원. 목포시청 하키팀 감독 김1000000원, 목포시 선수단 감독 김3000000원. 목포시청 하키팀 감독 김1000000원, 목포시 선수단 감독 김3000000원. 목포시청 하키팀 감독 김1000000원, 목포시 선수단 감독 김3000000원.

완도군이 제5호 치매 안심 마을인 약산면 당목리에서 치매안심센터와 완도경찰, 고금119안전센터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 합동 2024년 치매 노인 실종 예방 및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사진> 완도군은 치매로 인한 돌봄 부담이 사회적 문제가 됨에 따라 이번 모의훈련을 추진했다. 모의훈련은 가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배회하는 치매 환자 어르신을 발견한 후 신속히 112상황실에 신고하면 경찰과 119안전센터에서 출동, 신원 조회 후 가족에게 인계하기까지의 과정을 실전처럼 진행했다. 완도군은 모의훈련을 통해 실종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치매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힘을 모은다. 한편 완도군보건소장은 "치매 환자 실종 시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행정기관과 관계 기관 및 단체,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실종 치매 환자가 없는 완도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 목포신항만운영, 목포시청 하키팀에 후원금

목포신항만운영(주)이 7일 목포시청 하키팀 및 전국체전 출전 목포시 선수단 지원을 위한 후원금 1300만원을 지정 기탁했다. 목포신항만운영의 하키팀 선수단 후원은 2021년부터 4년째다. 전달식에는 박홍을 목포시장과 여중구 목포신항만운영 대표이사, 배상호 목포시청 하키팀 감독

이 참석했다. 후원금은 하키팀 및 전국체전 출전 목포시 소속 선수들의 훈련용품 구입 등에 쓰인다. 여중구 목포신항만운영 대표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꿈을 향해 도전하는 운동선수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 해남군 '인감증명' 요구 사무 없앤다

전수조사 3건 폐지 추가 검토  
해남군이 인감증명 요구에 의한 국민 불편 해소와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관련 실과소의 인감증명 요구사무를 전수 조사 후 대체가능한 사무에 대해서는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공공기관 등에서 인감 요구 사무가

해남군 관계자는 "민원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 직접 읍면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개선됐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더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서 기자 dia@kwangju.co.kr

## 영암군, 호우 피해 농업인 농기계 무상임대

12월까지...최장 3일간 임대  
영암군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제14호 태풍 플라스의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을 위해 12월까지 농기계 무상임대에 나선다. 이번 무상임대는 농업인이 농기계 등을 이용해 하부밭의 피해를 복구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발될 수 있다. 영암군농업기술센터는 집중호우 피해뿐만 아니라 올 여름 폭염에 따른 햇볕 데임, 벼벌구 피해 등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농업재해 인정 여부를 검토해 농기계 무상임대 범위를 넓혀갈 전망이다. 이정 영암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인들이 집중호우 피해를 포함해 노동력 부족, 인건비와 원자재 값 상승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무상임대로 농업인이 부담 없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선 기자 jbh@kwangju.co.kr

## 진도 무화과·투스 주원료 '미스트 세럼' 출시

진도군은 오하다 코스메틱(OHAD A COSMETIC)이 정령의 섬 진도에서 자란 지조, 무화과, 투스 주원료로 한 비건 미스트 세럼<사진>을 출시했다 7일 밝혔다. 이 제품은 총 78.7%의 진도산 추출물이 함유돼 있으며, 진도에서 엄선한 고품질의 원료를 사용해 피부에 깊은 보습과 모공 탄력을 부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미 싱가포르와 베트남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출시된 이 제품은, 다음 달 일본 시장에도 수출될 예정이다. 해외에서도 진도산 원료의 효능이 외국인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진도군을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하다 코스메틱 관계자는 "진도의 농어촌을 직접 방문해 진도의 청정한 자연을 체험하고, 최상의 원료를 직접 공수해 제품에 담아냈다"며 "이번



비건 미스트 세럼을 통해 전 세계에 진도의 아름다운 자연을 알리고, 소비자들에게 순수한 자연의 힘을 선사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kwangju.co.kr